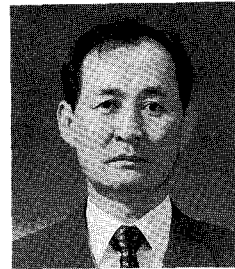


채란업 장기불황의 원인과 대책

— 상인중심의 유통구조, 생산자 중심 유통 형태로 바뀌어야 —



이 광 식

(주)에그원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우 리 채란업계는 거듭되는 악재속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닥시세를 유지하던 난가로 인해 생산비 이하의 난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료구입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 오름세를 보이더니 8월에는 생산비 이상으로 상승하여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추석명절이 지났음에도 계속 상승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여 안정기조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이러한 가격의 안정은 정상적인 소비증가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신학기, 추석특수, 태풍으로 인한 채소류 가격폭등, 생산량 감소 등의 상황이 일시적으로 겹쳐진 중복효과에 의한 것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생

산이 증가한다면 일시에 재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양계업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금 맞고 있는 안정기조가 한때의 모래성에 불과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채란업계가 처한 장기불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소견을 몇자 적고자 한다.

1. 잉여 산물 및 소비침체에 대한 문제와 대책

미미하던 채란업계는 1990년대 접어들며 밀려드는 외국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쟁력제고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양계단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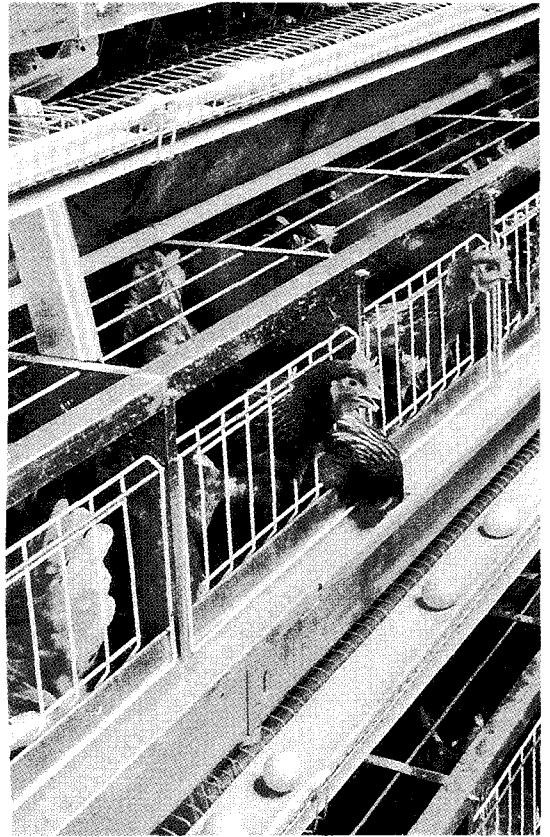
조성하게 되었고, 이시기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것도 사실이지만 소비가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 시설과잉은 잉여생산의 주요원인이 되어 난가하락을 주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증가율이 생산량에 도달하는 시점이 될 몇 년간은 대처방안 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 우리 양계산업의 여건에서는 산란농장에서의 사육수수 조절, 부화장에서 종계수입 및 입란조절, 잉여산물의 과감한 처리, 새로운 계란요리 개발 및 인터넷이나 매스콤을 통한 교육홍보 등의 방법으로 적정난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산란농장에서의 사육수수 조절방법은 경쟁력제고사업, 정부정책자금 등의 이용으로 많은 금융비용 부담을 안고있는 농장들 대부분은 영세하고 빈약한 금융구조를 지니고 있어 산란수량을 줄이는 것은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부화장에서 종계수입조절 및 입란조절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병아리 수급조절이 궁극적으로는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화장에서도 제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입란조절 등의 방법이 일부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협회차원에서 시행한다면 가장 실현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잉여산물의 과감한 처리로 적자를 보더라도 협회차원에서 자조금의 절반을 마



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지원이 가능하므로 과감하게 적자수출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산물의 가격을 보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넷째로, 새천년은 정보통신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의 효과는 무한하리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통신판매 등의 새로운 계란의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2.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와 대책

지난해부터 저난가 행진이 계속되어야만 했던 이면에는 우리 양계유통의 후진성이 결

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선진화되고 우리 양계산업에 맞는 유통구조의 혁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생산과 유통사이의 혼란은 사실 어제 오늘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인중심의 유통에서 생산자 중심의 유통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계란유통상의 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전에 지난가 속에서 실시된바 있는 산지실거래가는 상인중심의 유통에서 생산자중심의 유통으로 바뀐다면 어렵지 않게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보며, 이러한 생산자 중심의 유통은 정부관계자들의 주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농축협이 통합에 따른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농축협 산하 할인점 등에 대한 납품을 농축협이 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상인들이 납품을 하였기에 상인중심의 계란소비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산자가 직접

납품을 한다면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계란 품질등급화의 정착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3.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에 대한 문제와 대책

우리 채란업계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계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장에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현재 문제시 되고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뉴캐슬병과 가금인플루엔자 및 가금티푸스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질병의 문제점은 백신의 신속한 검증 도입이나 질병의 발생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발병 이후의 효과적인 대처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질병의 발생은



작게는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나아가서는 계란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양계질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농장에서 질병의 발생을

숨기려는 농가들의 생각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서 채란양계 관련 종사자들은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4. 향후 양계업계의 발전방향

지금까지 우리 양계업계가 처한 현실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닥쳐온 현실을 비껴가는 임시방편으로 궁극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대처방안이 되지 않는 못할 것이다. 우리 채란업계가 세계속에서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체질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인적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그 길은 전문인의 양성에 있다. 전문인들의 주도아

래 산학이 협력하여 많은 인프라구성이 이루어질 때 선진화된 양계업계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인프라의 구성은 자본의 투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업계와 연구기관간에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

비근한 예로 우리 에그원 농장에서는 순천향대학 의료창업센터 내의 벤처기업 리엔조 바이오텍과 기술제휴하여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결과인 위염예방계란의 생산기술을 이전받은 바 있다. 이렇듯이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가 우리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이용될 수 있는 분야는 생각보다 폭이 넓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산학의 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채란양계산업은 국제 경쟁력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외부의 요인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 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